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반 · 지역경제 내실 다져



2016년 남원시정은 묵묵히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고품격 문화관광, 활기찬 지역경제, 창조적 농업경영, 행복한 교육복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매진했다. 국내·외 충격과 도전 속에서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일심동체로 노력한 결과 시정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와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가 남원시가 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품격 높은 문화관광 남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도 큰 성과를 냈다. 백두대간의 속살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전통한옥숙박체험시설인 남원예촌, 남원농악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함파우소리체험관이 개관했다. 3년째를 맞은 문화도시 사업과 2016년 무형문화도시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민의 자긍심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인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승격됐다. 남원읍성 복원사업도 용역을 마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건축재정 속에서도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77개 사업에서 총 1,20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환주 시장은 "2016년은 희망찬 남원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참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2016년 남원시정의 성과를 뒤돌아본다.

▲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반 다져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는 속담을 실천했다. 고품격 문화관광 남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사업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호텔급 전통한옥숙박체험 시설인 남원예촌이 준공됐다. 광한루원 북문쪽에 1단계로 98명이 숙박할 수 있는 남원예촌은 지난 7월 개장한 이래 꾸준히 관광객이 찾아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리고 있다.

남원예촌 준공으로 7억원 상당 매출 · 직 · 간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올려 공약사업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첫 걸음' 내딛어

백두대간의 속살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백두대간생태교육 전시관은 지난 4월 개장에 3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지리산권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농악과 소리의 넘어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관광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남원예촌과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개관되면서 춘향테마파크~광한루원~남원예촌~예가람길~만인의총~교통산성으로 이어지는 시내권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1시간 1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광한루원(주거점)과 남원관광지(부거점)를 연계하는 하나의 관광노선을 만들어 도탈관광을 실현한다는 목표이다.

▲ 활기찬 지역경제 내실 다져

세계적인 장기침체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주춤할 수 없는 시대사명이다. 먼저, 이환주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노암산업단지에 집적화 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미 7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3개 기업은 입주해 가동 중이고, 1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연기관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과 친환경 CGMP 생산시설을 준공한데 이어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에 매진하고 있다. 지리산 천연 자생식물과 허브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뷰티 소재 연구개발과 생산, 전시, 유통, 판매 등 기업의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도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설시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용남시장은 수산물 중심의 골목형 시장으로, 인월시장은 지리산권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용남시장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지난 9

월부터 5억원을 들여 시장브랜드 개발,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다. 용남시장은 문화예술 전시장으로 자리 잡은 예가람길과 연계해 시장을 활성화 하고 있다.

▲ 농업 경쟁력 확보-농업인 복지 향상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운봉·금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이 선정된 창조적 농촌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조적 농촌개발은 182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4년 동안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도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섰다. 지난 2013년 설립한 이래 공동농산물 브랜드「춘향팥인」으로 3년 연속 7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올해도 7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조직 선정으로 신규자금 10억원 지원과 기존 사용자금 197억원을 포함한 207억원 중 65억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무이자, 143억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연리 1% 저리 혜택을 받는다. 남원농업기술센터는 미꾸리 1,000만 마리 생산능력을 갖춘데 이어, 무환수 양식기술(Bio Floe Technology) 도입 실험을 추진해 1차 성과를 도출했다. 무환수 양식기술은 기존의 유수식과 달리 물을 환수하지 않고 육성수조 내 유용 미생물의 대량증식을 유도한다. 유용 미생물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 무병, 무항생제로 육성하는 친환경적인 양식기술이다. 물을 환수하지 않아 예전지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무환수 양식기술을 이용해 성어를 양식하면 노지의 성공률 30% 보다 훨씬 높은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흥부골 포도는 과일산업대전에서 2년 연속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아 전국 최고의 맛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업비 72억9,400만원을 들여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번기 공동급식 2,6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3억1,400만원, 농업인 학자금 3억5,1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1억1,1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2억6,2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3억2,600만원, 출산농가 도우미와 영농도우미 5,400만원, 컨설팅 지원 1억5,000만원, 후견농업경영인 육성 5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1월 원형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소비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망을 제공받고 있다.

▲ 행복한 교육-모두가 든든한 복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인 중·고등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년째 진행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인「삶을 품고 피어나는 행복교육의 터전, 교육 남원」을 목표로 지역의 특색이 배어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교 혁신마인드 제고, 수업혁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등 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혁신교육 특구는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4억 8,000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부터 4년 동안 20억원을 투입한다. 3년차를 맞은 서울에향장학속도 시민, 향우들의 관심속에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요양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에향장학속 학생들은 공직사회와 기업으로 진출해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품격 시대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남원시는 전체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을 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32억원을 들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긍심을 유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은둔형 노인,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노인 170명을 선정해 말반찬배달,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무료 급식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취업알선, 자활지원, 서민금융지원 등이 윈스톱으로 이뤄진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예촌 by 켄싱턴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